

GLOBAL DEFENSE NEWS

제1324호 2015. 12. 10.

■ 무기체계 소식

감시정찰	미 해군, 록히드마틴사에 잠수함용 전자광학 영상 센서 발주	2
기 동	이스라엘, 마지막 메르카바 마크 II 주력전차 퇴역 예정	3
함 정	호주 해군, 케이프급 경비정 2척 진수	4
항 공	러시아, 5세대 전투기의 개발 비행시험 완료	5
화 력	미 해병대, 신형 M1122 훈련탄 시험사격 성공	6
방 호 · 유도무기	브라질 헬리브라스사, AH-15B 헬기에 엑조세 미사일 통합을 위한 첫 번째 시험단계 완료	7

※ 전재·재배포시 출처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명시바랍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정보팀은 전 세계 국방과학 기술정보와 방산시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방 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 국방과학기술정보(격월간), 주요국 국방·군사 동향 시리즈(연 3회), 세계 방산시장 연감 등의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록히드마틴사에 잠수함용 전자광학 영상 센서 발주

-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미 해군에 2개의 잠수함용 첨단 개방형 체계인 전자광학 영상체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 체계는 2대의 AN/BVY-1 통합 잠수함 영상체계(ISIS)임. ※ ISIS : Integrated Submarine Imaging Systems
- ISIS는 미국의 고속 공격 및 순항미사일 잠수함 임무에 중요한, 전천후, 시각 및 전자식 탐색, 디지털 영상관리, 징후 및 경고 기능을 제공함.
 - ISIS 사업은 고해상도 카메라 및 광섬유 디지털 영상을 이용하고, 능동 및 수동 거리측정 제어 기능을 제공
 - 영상 기록, 저장 및 재생 능력 제공뿐만 아니라, 영상을 잠수함에서 다른 해군 및 합동군에게 전송하는 능력을 구현할 계획
 - ISIS는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버지니아급, 씨울프급, 로스앤젤레스급 고속 공격 잠수함과 연동되며, 융통성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
- ISIS는 현대식 잠수함 광학마스트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영상 개선 기능을 제공하고, 잠수함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잠수함 전투원들과 영상을 공유하도록 지원함.



AN/BVY-1 통합 잠수함 영상체계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유도무기

주간 DTiMS 주요 기사

이스라엘, 마지막 메르카바 마크 II 주력전차 퇴역 예정

- 이스라엘 방위군(IDF) 기갑군단은 33년간 운용해 오던 주력전차(MBT) 메르카바 마크(Merkava Mark) II의 최종분을 퇴역시키고, 신형 메르카바 마크 III(1990년에 운용시작)와 차세대 메르카바 마크 IV(2004)로 기존의 모든 전장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 메르카바 II 전차 다수는 병력수송장갑차로 전환되어 전장에서 병사들을 지원하거나, 부상병사를 수송하는데 사용될 예정
- 메르카바 II 전차를 운용하는 마지막 징병여단인 IDF 제7기갑여단은 2016년 말경에 MBT를 메르카바 IV로 전환할 예정임.
 - 메르카바 IV는 대전차미사일에 대비해 라파엘사 능동방어장치(APS) 트로피(Trophy)를 탑재하며, 새로운 디지털 지휘 통제체계 덕분에 공군 및 정보부대와 직접 통신 가능



메르카바 마크 II MBT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유도무기

주간 DTiMS 주요 기사

호주 해군, 케이프급 경비정 2척 진수

- 호주 해군은 운용 중인 베이급 경비정을 대체하면서 아미데일(Armidale)급 경비정의 전력 보완을 위해 건조 중인 케이프급 경비정(CCPB) 2척을 진수함. ※ CCPB : Cape - Class Patrol Boat
 - 호주 해군은 배수량 300톤급인 아미데일급 경비정을 모두 14척을 건조하였으나, 번더버그(Bundaberg)함이 2014년 8월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13척을 운용 중임.
 - 케이프급은 아미데일급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으며, 그동안 아미데일급 경비정을 운용하면서 도출된 개량 사항을 반영함.
 - 선체는 알루미늄 합금 단일선체로 제작되었고, 전장 57.8m, 함폭 10.3m, 흘수 13m로 케이프급에 비해 다소 크며 승조원은 13명이 탑승함.
 - 최고속력 25kts, 항속거리는 12kts로 4,000해리임.



호주 해군의 케이프급 경비정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유도무기

주간 DTiMS 주요 기사

러시아, 5세대 전투기의 개발 비행시험 완료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유도무기

주간 DTiMS 주요 기사

- 러시아 국방부차관은 5세대 전투기 PAK FA의 시험을 실질적으로 완료하였다고 확인함.
 - 비행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여러 대의 시제기가 항전장비의 공중기능을 시험 중
 - PAK FA의 시제기 T-50은 러시아의 수호이(Sukhoi)사와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사(HAL)가 공동 개발하여 2010년 첫 시험비행을 착수
 - 러시아 최초의 스텔스기로 MiG-29와 Su-27을 대체할 전투기임.
 - ※ PAK FA : Prospective airborne Complex of Frontline Aviation ※ HAL :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
- PAK FA는 공중 주도권 확보와 공격용으로 설계된 다목적 전투기임.
 - 최고속도 마하 2.3의 1인승 초음속 전투기로 +9g의 중력가속도(g값)
 - 임무중량 29,270kg으로 초음속 비행 시 1,500km, 아음속 비행 시 3,500km의 항속거리를 가짐.
 - 스텔스 성능을 가지며 기총,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장착



비행중인 T-50 PAK FA 전투기

미 해병대, 신형 M1122 훈련탄 시험사격 성공

- 제10해병연대 제1대대가 지난 11월 19일 미 해병대 기지 레준 캠프에서 신형 M1122 훈련탄에 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음.
 - 신형 M1122 훈련탄은 획득비용을 줄여서 많은 훈련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
- 해병대가 본 신형 M1122 훈련탄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예산상의 제한과 M795탄의 비용 증가가 원인 이었음.
 - M1122 훈련탄은 이중목적 개량형 재래식 탄약에서 나온 탄피를 재활용하며, 재래식 탄에서 폭약을 일부 추출하여 이를 콘크리트와 함께 충전하여 훈련탄으로 재활용
 - 훈련탄은 현 고폭탄과 무게가 동일하나 폭발효과는 고폭탄의 약 1/7 정도이며, 고폭탄 비용의 1/3로 획득 가능
 - M1122 훈련탄은 2017년까지 제2해병원정군 포병이 사용 예정



신형 M1122 훈련탄을 사격하는 M77A7 화포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유도무기

주간 DTiMS 주요 기사

브라질 헬리브라스사, AH-15B 헬기에 엑조세 미사일 통합을 위한 첫 번째 시험단계 완료

■ 브라질 헬기 전문업체 헬리브라스사는 해군용 에어버스 헬리콥터사 AH-15B(H225M)의 정찰 및 대함전 버전에 장착할 MBDA사의 엑조세 AM39 블록 2 Mod 2 대함미사일과 전술데이터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3주간의 시험단계를 완료하였음.

- 시험활동 중에 발사기와 임무체계 간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미사일을 발사하였음.
- 2016년 초에 계획된 시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며, 이후 AH-15B 헬기에서 미사일 비행시험을 실시할 예정
- 브라질의 엑조세 MM40 블록 1 함대함 미사일은 아비브라스사의 AV-RE40 추진체계를 이용하여 성능을 개량하였음.

■ 본 임무체계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와 해군이 2012년에 체결한 4,300백만 달러 이상 규모 계약의 일부로서, 에어버스 DS사와 엠브라에르사 산하 아테크사가 개발하고 있음.

- 본 체계는 에어버스 DS사의 SAMSARA 체계를 기반으로 함.

※ SAMSARA : Système Aérien Multi senseur de Surveillance d'Analyse et de Reconnaissance Autonome (autonomous multi-sensor aerial surveillance, analysis and reconnaissance system)



엑조세 AM 39 미사일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유도무기

주간 DTiMS 주요 기사